

재외동포청, '이달의 재외동포' 선정·발표...모국 기여 알린다

- 대한민국 발전 · 거주국 내 한인 위상 제고한 인물 발굴 · 홍보
- 첫 '이달의 재외동포'에 제주 관광개발의 선구자 김평진(1926~2007)

-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대한민국 발전 또는 거주국 내 한인 위상 제고에 기여한 동포를 발굴해 매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선정·발표한다.
 - 광복 이전 독립운동 시기부터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경제, 문화, 사회, 과학 등 각 분야에서 모국과 동포사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재외동포의 활동을 신문, 방송, SNS 등을 통해 홍보해 국민에게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의 자산'임을 인식시킨다는 계획이다.
 - 재외동포청은 이러한 인물 선정을 위해 전 세계 동포단체의 추천과 언론, 교육, 경제 등 각 분야 민간 전문가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재외동포정책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의 재외동포'를 최종 선정한다고 밝혔다.
- 첫번째 '이달의 재외동포'로는 모국과 제주 발전에 선구적인 역할을 한 재외동포 기업인 김평진(金坪珍, 1926~2007년) 전 재일제주개발협회장이 선정됐다.
- 제주 출신인 김평진은 남다른 애향심으로 제주도 내 최초의 관광호텔을 건립하는 등 제주 관광 산업 발전에 기틀을 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그는 1964년, 제주도 최초의 현대식 관광호텔인 제주관광호텔(현재

하니크라운호텔)을 건립하면서 본격적인 관광 인프라 조성에 나섰다. 이후 서귀포관광호텔과 허니문하우스를 연이어 오픈하면서 제주도가 국제적인 관광지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당시 제주도에선 외국인 관광객을 수용할 만한 호텔이 전무했기 때문에, 그의 이러한 투자는 제주 관광산업의 발전에 초석이 됐다.

- 교육 분야에서도 중요한 기여를 했다. 1966년, 경영난으로 폐교 위기에 처해 있던 제주여자학원을 인수해 여성 교육의 발전을 위해 힘썼다. 그의 지원으로 제주여자학원은 제주 지역의 여성 인재를 양성하는 중요한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1981년 재일한국교육재단 고문으로 활동하며 재일동포 2세들이 모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역사와 국가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 그뿐만 아니라 언론 발전에도 이바지했다. 1977년 제주신문사(현재 제주일보)의 회장으로 취임하며 제주도의 언론 환경을 개선하는 데 앞장섰다. 그는 신문사를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언론 기관으로 발전 시키며, 제주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 일본에서 여러 기업을 운영하며 상당한 자본을 형성한 그는 수익을 제주도의 관광산업과 교육사업, 사회사업 등에 투자했다. 1982년에는 재일한국인상공연합회 회장을 맡아 한국과 일본 간 경제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또 제주도의 감귤 산업 발전을 위해 신품종 감귤 묘목을 보급하고, 제주 농민들을 일본으로 초청해 선진 농업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했다.
 - 그의 이러한 공헌을 높이 평가해 우리 정부는 1981년 국민훈장 모란장, 1987년 국민훈장 무궁화장 등을 수여한 바 있다.
- 이상덕 청장은 “재외동포는 일제강점기 해외에서 독립운동뿐만 아니라 해방 후 조국 근대화, IMF 외환위기 극복 등에 있어 막중한 역할을 했다” 며, “이달의 재외동포 선정을 통해 그들의 공로를 널리

알려 모국과 동포사회 간 유대감을 높이고, 재외동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붙임 : 3월의 재외동포 김평진 상세자료. 끝.

담당 부서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과	책임자	심의관	곽삼주	032-585-3154
		담당자	사무관	김형준	032-585-3161